

溫達에 관한 研究

- 阿旦城과 阿且城(峨嵯城)을 중심으로 -

金顯吉*

-
- I. 序言
 - II. 『三國史記』의 溫達傳
 - III. 溫達傳에 대한 諸見解
 - IV. 溫達의 出征과 阿旦城
 - 1. 雞立嶺·竹嶺 巴西의 지역
 - 2. 阿旦城과 阿且城
 - V. 阿旦城과 阿且城의 位置 問題
 - VI. 結言
-

I. 序言

高句麗의 名將으로 알려진 溫達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列傳에 실려 있는 것이 그 시원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실려 있는 고구려인은 乙支文德·乙巴素·密友·紐由·明臨答夫·倉助利·蓋蘇文(子 男生·男建·男産, 孫 獻誠)과 온달 뿐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歷史에 있어서 온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傳記의 내용이 매우 說話的인 면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는 위대한 장군이기에 앞서 바보 온달(愚溫達)로서, 또는 온달의 부인인 平原(岡)王의 딸 平岡公主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더욱 온달의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오히려 평강공주가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바보스러운 온달을 찾아가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게 된 사연으로 孝와 忠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적인 면에 의미를 더하여 전하여져 왔다.¹⁾

* 忠北郷土文化研究所 所長·忠北大學校 史學科 講師

따라서 온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설화적인 면에 대하여는 있어 왔지만²⁾ 그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의 通史에서만 漢江邊을 잃은 고구려가 실지 회복을 위한 역할로 阿且城의 위치에 대해서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³⁾

아단성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동안 여러 설이 있어 왔으나 지금 서울의 광진구와 경기도의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峨嵯山(또는 阿且山)에 있는 산성으로 비정하여 오면서 별로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온달산성이 부각되면서 그 위치문제가 몇 분들에 의해 영춘지방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음에 관심이 간다.

단양 영춘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온달장군에 의해 축성이 되었다고 전하여 오는 온달산성이 있으며, 이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지역에는 온달과 관련된 많은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의 雞立嶺 주변에도 온달과 관련된 전설이 있음에 관심이 간다.

이와 같은 여러 요건으로 최근에 와서 온달산성이 있는 단양지역의 郷土史研究會에서는 관심을 깊이 하여 온달과 관련된 전설 및 地名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 웅장한 온달산성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보여 오다가,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에 地表調査를 의뢰하여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였다.⁴⁾ 이 보고서에서도 「溫達傳承과 溫達關係說話」와 주변의 지명에 대하여 조사 수록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련 사실을 밝히려고 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온달산성과 주변 지역을 답사하면서 막연하나마 느껴왔던 아단성을 단양의 영춘지역에다 비정하고자 한 바 있다.⁵⁾ 따라서

- 1) 온달에 대하여는 騎射에 뛰어난 忠誠스러운 武人으로서 설화적인 인물로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主題도 온달보다는 평강공주를 부각하여 왔으니 다음과 같다.
文一平, 1948. 「平岡公主」 『朝鮮名人傳』上 (朝光社).
李熙德, 1965. 「溫達」 『韓國의 人物像』2 (新丘文化社).
金義貞, 1965. 「平岡公主」 『韓國人物史』 (博友社).
拙稿, 1979. 「사랑으로 수놓은 平岡公主」 『한국여성』11 (한국여성사).
- 2) 온달에 대한 전기를 설화문학의 작품으로 또는 일종의 英雄敘事詩로 보려는 견해(1982. 『韓國史講座 -古代篇-』 I (一潮閣), 263)가 있으며,
임재해, 1982. 「온달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의 갈등」 『女性問題研究』11.
金鉉龍, 1990. 「溫達說話考察」 『학산 조종업박사 회갑기념논총』 (동 간행위원회) 등이 있다.
- 3) 李弘植 外, 1958. 『國史新講』 (一潮閣), 56 ; 震檀學會편,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 458, 李基白, 1967. 『韓國史新論』 (一潮閣), 67 ; 韓祐勳, 1970.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58 등에서 모두 阿且城을 廣壯津의 阿且城(峨嵯城)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위치만을 기록하고 있는 정도이다.
- 4)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89. 『溫達山城地表調査報告書』.
- 5) 拙稿, 「忠州地域의 歷史地理의 背景」 『國史館論叢』16, 133.
拙稿, 1991. 「溫達將軍과 平岡公主」 『中原文化散策』 (청지사), 239.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할 겸, 온달전에 대한 그 동안의 여러 견해를 아울러 피력하고자 하는 바이니 諸彦의 叱正을 받고자 하는 바이다.

II. 『三國史記』의 溫達傳

온달전에 대하여는 『삼국사기』 권45 열전 제5에 기록되고 있으니 다음에 편의상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옮겨 본다.

① 온달은 고구려 平岡王(平原王) 때(559~590)의 사람이다. 그 용모가 두드러지게 우습게 생겼으나 마음씨는 착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乞食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떨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로 거리를 왕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愚溫達)이라고 하였다. 이때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너는 항상 울기만 하여 나의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서는 반드시 士大夫의 아내는 될 수 없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하며 늘 말하였다.

딸의 나이 16세에 이르자 (왕은) 上部의 高氏에게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공주는 대답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찌하여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匹夫도 오히려 食言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至尊으로써, 그러므로 王子는 戲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의 명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딸이라 할 수 없다. 어찌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너의 갈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공주는 보물 팔찌 수 십 개를 팔꿈치에 매고 궁궐을 나와 혼자서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곧바로 그 집에 이르렀다. 눈이 먼 노모를 보고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노모는 대답하기를 “내 아들은 가난하고 또한 추하여 貴人이 가까이 할 바가 못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이상하고, 손을 만지니 솜과 같이 부드러우니 반드시 천하의 귀인이구려. 누구의 속임수로 이곳에 오셨는지요.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산으로 간지 오래되어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공주는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러서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공주가 속에 품은 뜻을 말하니, 온달이 성을 내며, “이는 어린 여자로서 마땅한 행실이 아니다.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며 돌아보지 않고 갔다. 공주는 홀로 돌아와 사립문 밑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서 모자에게 자세하게 말하였으나 의심하고 결정하지 못하니, 그 어미

가 말하되 “내 자식은 못생겼음으로 귀인의 배필로 부족하고, 내 집은 지극히 가난하여 귀인이 거처하기에 마땅하지 않으오” 하니, 공주가 대답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쟁을 수 있으면 오히려 가하고, 한 자의 배도 께멜 수 있으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마음만 같다면 어찌 반드시 부귀한 연후에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내 금팔찌를 팔아 田宅과 奴婢, 牛馬, 器物을 사들여 쓸만한 用具를 다 갖추었다.

처음에 말(馬)을 살 때 공주는 온달에게 “시장 사람들의 말을 사지 말고, 반드시 國馬를 택하여 병들과 파리해서 놓아 버리는 것을 사 오시오” 하고 말하니, 온달이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는 매우 부지런히 길렀으므로 말은 날마다 살찌고 또한 건강하였다.

②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철 3월 3일이면 樂浪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여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山川神에 祭祀를 지낸다. 그 날이 되면 왕도 나가 사냥을 하였는데 여러 신하와 五部の 병사들도 모두 따라 나갔다. 이때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그는 항상 앞에서 달렸으며 잡은 짐승 또한 많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왕이 불러 성명을 물어보고는 놀라며 또 이상히 여겼다.

이때의 後周의 武帝가 군사를 일으켜 遼東을 치니,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拜山의 들에서 맞아 싸우는데 온달이 선봉이 되어 날래게 싸워 수 십여 급을 참살하니 모든 군사들이 이긴 틈을 타 분발하여 적을 쳐서 크게 이겼다. 싸운 공을 의논할 때, 온달을 첫째로 꼽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은 크게 감탄하며, “이 사람이 나의 사위이다”라고 말하며,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爵位를 주어 大兄을 삼았다. 이에 연유하여 총애와 영화가 더욱 두텁고 위엄과 권세가 날로 성하였다.

③ 陽岡王(嬰陽王)이 즉위함에 이르러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漢北의 땅을 빼앗아 郡縣으로 하였으니 백성들이 몹시 원통해 하며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어리석고 불초하다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 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서하기를, “雞立峴과 竹嶺 서쪽(己西)의 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아가 신라군과 더불어 아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流矢에 맞아 路上에서 죽었다.

장사를 지내려 하자 靈柩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공주가 와서 棺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났으니 아아 돌아가시오” 하니, 드디어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대왕이 듣고 비통해 하였다.

이상이 온달전의 내용 전부이다.6)

Ⅲ. 溫達傳에 대한 諸見解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머리 부분인 ①단락은 흥미있는 설화적인 색채를 강하게 띤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온달이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本紀에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獨步的인 所傳으로 특이하다.⁷⁾ 이 단락에서 볼 때 사실상의 주인공은 평강공주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분들은 온달보다도 평강공주에 중심을 실어 주제로 하여 왔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⁸⁾

특히 이 부분에서 온달의 미천한 신분과 공주와의 결합에 대해 당시의 엄격한 身分制 사회였던 고구려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온달이 “零落한 어느 名家의 後裔인지도 모르겠다.”는 견해를 보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였으며,⁹⁾ 이에 더하여 고구려 貴族社會의 신분질서가 온달을 통하여 본 通婚圈에 나타난 면을 사회적 변화의 증거로 이해하려는 李基白교수의 연구도 있어왔다.¹⁰⁾

특히 李교수는 이 연구에서 『삼국사기』 열전 중 人物 分類에서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卷5에 온달을 포함시키고 있다는데 관심을 보이며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즉 웃음거리가 될 정도의 醜男으로 보여지고 바보라고 불리어지던 온달과, 눈이 먼 노모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가난한 가정환경 등에서 보아 온달의 신분은 ‘零落한 名門出身이 아니라 애당초 명문이 아니었을 것’이라 하고, 이 설화는 공주와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結婚을 說話的으로 꾸밈으로써 正當化하려고 했던 데에

6) 翻譯에는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乙酉文化社)를 많이 참고하였다.

7) 李弘植, 1959. 「三國史記 高句麗人傳의 檢討」, 『史叢』4, 16에서 온달전이 고구려본기에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하여, “大部分이 說話的 色彩가 濃厚하여서 그렇겠지만”이라 하고, 본기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溫達傳은 他에 對比할 수 없는 獨步的인 所傳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온달전을 列傳第 5에 배정한 것은 乙巴素·明臨答夫같이 名宰相이거나 또는 密友·紐由와 같이 충신으로 列國하였다는데 있을 것”이라 하여 온달에 대한 입장을 규명하고 있다.

8) 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달이 실제 주역임에도 평강공주로 주제를 삼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평강공주가 사실상 주인공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李熙德의 「溫達」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평강공주에 비중을 크게 하고 있다.

9) 文一平선생은 그의 글, 1948. 앞 글, 30의 말미에 몇 가지 의문점을 ‘小評’이라 別題하여 기록하고 있다.

10) 李基白, 1967. 「溫達傳의 檢討 -高句麗 貴族社會의 身分秩序에 대한 瞥見-」, 『白山學報』3에서 온달의 전기를 크게 兩分하여 전반부를 “說話的인 색채를 띤 虛構的인 部分”이라 하고, 후반부를 “대체로 歷史的인 事實로 믿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온달을 단순한 忠臣들만을 묶은 列傳 第7에 넣지 않고, 乙巴素·金后稷·祿眞·密友·紐由·明臨答夫·昔于老·朴堤上·貴山 등과 함께 엮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서 공통적인 면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그와 평강공주와의 혼인하게 된 신분적인 면을 풀려고 하였다.

虛構가 介在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고구려의 귀족사회에서 지켜오던 왕족의 통혼권 밖에 있었던 온달이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서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 점을 사회적 변화의 증거라고 하였다.

②단락에서는 ①단락과는 달리 설화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의 연례행사인 歲時俗과, 또한 당시의 국제정세와 결부되어 온달과의 관계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에는 사냥을 하고, 이 날 잡은 짐승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게 하고, 이 사냥에서 온달의 뛰어난 사냥솜씨가 돋보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왕이 그를 처음으로 引見하였다라는 사실이다. 이후 온달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게 되었으니 그의 출세의 길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武勇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 後周가 고구려의 요동을 침입하여 오자, 온달은 선봉장으로 나아가 적군을 물리치는 동기를 마련하여 승리로 이끌게 한 首功을 세웠다. 이에 왕이 감탄하며, “이 사람이 나의 사위이다”라고 한 사실이다. 약간의 修飾이 보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비로소 온달을 사위로서 인정을 하여(追認) 그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점에 주목된다.李교수는 이 사실을 들어 ‘만일’을 전제하면서 이 싸움에서 위험에 부딪친 왕을 구출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면서 ‘온달이 국왕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상상’하면서 승리를 주도한 결과로 평원왕이 신분을 초월하여 사위로 삼을 것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 온달과 공주의 결혼이 성사하게 된 실제적인 원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③단락은 온달의 出征과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출정목적지와 전사한 장소가 분명하여 『삼국사기』 온달전이 갖는 본래의 뜻이 담긴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온달이 陽岡王에게 고구려의 舊土를 회복하겠다는 결심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嬰陽王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되어 온 바이다.¹¹⁾ 온달이 전사한 후 靈柩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함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공주가 와서야 움직였다고 함은 공주도 함께 출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바는 온달의 출정 목표였던 雞立嶺과 竹嶺已西와, 그가 전사한 지역으로의 阿旦城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11) 『東史綱目』 3上, 庚戌年條(590, 嬰陽王 원년)에서 온달의 출정과 전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李丙燾선생도, 震檀學會,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457 ; 『國譯 三國史記』 673에서 “陽岡(陽原)王은 平岡(原)王의 父이므로 여기에는 年代로 보아 嬰陽王의 誤”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원(양강)왕 때에 新羅의 眞興王은 漢江流域을 석권한 시기(551~553)로 맞지 않는다. 평원(강)왕을 지나 영양왕 때에 이르면 隋와의 싸움이 있고, 고구려의 高勝이 北漢山城을 공격하다 실패하고(603, 영양왕 14), 왕 19년(608)에는 신라의 北邊을 치고 牛鳴山城을 함락한 기록이 있음을 보아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고 출정한 시기는 영양왕 때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IV. 溫達의 出征과 阿旦城

온달의 전기에 있어서 마지막 단락인 온달의 출정관련 기록은 역사사실로서 그동안 通史에서만 주로 다루어 오고 있었던 부분으로 고구려가 失地를 회복하고자 했던 지역과, 온달이 전투를 벌였던 지명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어 당시의 정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관심있는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온달은 출정에 앞서 맹세하기를 “雞立峴과 竹嶺 서쪽(巴西)의 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던 시기의 지역으로 고구려에서는 본래 자기네 영역으로 항상 생각하여 왔던 곳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新羅의 金春秋가 百濟의 치열한 공세를 고구려와의 협력관계를 물리치고자 642년(善德王 11)에 고구려에 들어가 원병을 요청할 때 寶藏王은, “麻木峴(雞立嶺)과 竹嶺은 본시 우리 땅이니 네가 만일 竹嶺 西北의 땅을 돌려보내면 원병을 보내겠다”고 한 말과, 淵蓋蘇文이 “전날 隋人이 우리를 侵伐하였을 때 신라가 이 틈을 타서 우리의 城邑 500里를 탈취하였다. 이로부터 원한과 間隙이 있는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만일 우리의 失地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싸움을 그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짐작된다.¹²⁾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아 이 지역의 역사지리적인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온달의 이와 같은 강한 의지의 표현은 온달 개인의 뜻이라기보다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국가적인 절실한 욕구(執着心)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고구려는 계림령과 죽령을 넘어서 더 남쪽까지 진출하였으나, 이곳에 집착하였던 데에는 남북간의 경계를 이루는 小白山脈에 위치한 이 두 고개가 장차(통일)를 생각할 때 절대 전략의 요충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중요한 關防施設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알게도 한다.

계림령에 대하여서도 여러 설이 있어 왔으나, 忠州市 上毛面 彌勒里와 慶尙北道 聞慶郡 觀音里 사이에 있는 오늘의 하늘재로 봄이 타당하다.¹³⁾ 이곳은 소백산맥이 남북

12) 온달이 출정에 앞서 왕에게 아뢰는 말 가운데 ‘新羅는 우리 漢北의 땅을 빼앗아 郡縣으로 삼았다’고 한데서도 짐작이 가며, 또한 金春秋가 642년에 百濟의 大梁州 攻陷에 대한 설욕을 위해 고구려를 방문하여 請兵할 때, 고구려의 보장왕의 말(『삼국사기』 권45, 金庾信 進上. 同書 권5, 善德王 11년조)과 淵蓋蘇文의 말(上 同書 권49, 蓋蘇文 進)한 가운데에서 보아도 계림령과 죽령을 고구려에서는 자기네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재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雞立嶺은 일명 麻木峴이라고도 하며, 이 위치에 대하여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에서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읍 원북리로 넘어가는 고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257)’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鳥嶺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로, 『東史綱目』과 申采浩(『朝鮮上古史』)·李丙燾(『譯註三國史記』) 등 제씨의 설이 있어 왔으며, ‘지류재’로 불리우는 충주시 상모면 大寺里에서 彌勒里로 넘어가는 고개로 보아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현지를 실사를 한 결

으로 이어지는 사이의 가장 낮고 평탄한 고개이며, 또한 漢江水系와 洛東江水系의 分岐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죽령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서 경상북도 영풍군 풍기읍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오늘에도 죽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계립령과 죽령은 삼국의 국경지역으로 분쟁이 많았던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이다. 『삼국사기』도 그 의미를 일깨우듯 유일하게 이 두 고갯길에 대한 開通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신라에서는 삼국초기인 A.D. 156년(阿達羅 3)에 계립령을, 2년 뒤인 158년에 죽령의 길을 열었다고 하였다.¹⁴⁾ 군사적인 방어시설로, 또는 제반 문물의 교역로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이 嶺路를 개척한 후 한 때 북쪽으로 진출하여 당시 백제의 소유였던 漢江邊과 鎭川地域까지 장악했던 일도 있다.¹⁵⁾ 이후 이 지역에서 백제와 빈번한 접촉이 있었으나, 5세기 후반 고구려의 南進政策에 의해 이 두 고갯길은 고구려의 소유하는 바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주를 나라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또는 서울에 대한 別都로서의 의미를 갖는 國原城이라고 이름하고,¹⁶⁾ 더욱 영역의 確定을 다지는 의미에서 中原 高句麗碑를 세우는 등 사실상 남진 통일외의 전진기지화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에서는 6세기 중엽에 진흥왕의 한강유역 진출로 인하여 이 지역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한강유역의 북쪽으로 고구려의 세력을 완전히 밀어 올리게 되었다. 이 작전과정에서 단양지역을 확보하고 新羅 赤城碑를 세우고, 충주지역을 小京으로 승격시키는 등 크게 관심있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니 신라로서도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장차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물러간 고구려가 강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온달이 출정하게 된 것이니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과 미륵리에서 문경의 관음리로 넘어가는 고개인 ‘하늘재’로 비정하는 입장이 있어 오면서 定說化되고 있으니 다음의 글이 있다.

崔壹聖, 1986. 「歷史地理的으로 본 雞立嶺」, 『湖西史學』14.

車勇杰, 1987. 「鳥嶺關防施設에 대한 연구Ⅱ -雞立嶺嶺路問題의 整理-」,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拙稿, 1997. 「雞立嶺考」, 『竹堂李炫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4)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왕 3년(A.D. 156)조에 “開雞立嶺路”, 同書 同王 5년조에 ‘開竹嶺’이라 하였다.

15) 上 同書, 권2, 阿達羅王 14년 8월에, “命一吉浪興宣 領兵二萬伐之 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還其所掠男女 乞和”라는 기록과, 同書 同卷 伐休王 5년 2월조에 “百濟來攻母山城 命波珍浪九道 出兵拒之”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앞의 漢水는 계립령을 넘어와서 가장 가까운 忠州지역이 아닌가 한다. 母山城은 오늘의 鎭川 大母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16) 國原의 의미에 대하여 邊太燮교수는 ‘나라의 중심’이라는 뜻이라 하였으며(1983. 「中原文化의 歷史的 背景」, 『考古美術』160, 43), 李道學선생은 고구려의 서울(수도)에 대한 別都의 뜻(「永樂 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105)으로 보려고 하여, 각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 雞立嶺·竹嶺 已西의 지역

온달이 목표로 한 계림령과 죽령 이서의 땅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바로 고구려가 바라는 유일한 목표이기도 한 곳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일찍이 이병도선생은 계림령과 죽령의 서쪽이 아니라 북쪽의 잘못이라고 보았다.¹⁷⁾ 그러나 필자는 북쪽이 아니라 『삼국사기』의 原文대로 서쪽이 옳음을 밝힌 바 있다.¹⁸⁾ 여기에 요약하여 읊기기로 한다.

우선 온달은 출정에 앞서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는 말 가운데 “신라는 우리 漢北의 땅을 빼앗아 郡縣으로 삼았다”고 한데서 한강의 북쪽임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된다. 그런데 출정할 때는 특정한 지역인 계림령과 죽령을 거론하고 그 서쪽의 땅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에서의 주장은 막연한 漢北이 아니라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지는 어디에 해당하는 곳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결론적으로 忠州지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본다. 충주는 계림령·죽령과 함께 삼각지대를 이루는 관련이 깊은 요충임은 일찍부터 선각들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¹⁹⁾

고구려는 長壽王의 적극적인 남진책으로 5세기 후반에 한강 이남으로 크게 진출하였으니 이는 고구려의 삼국통일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 때 확보한 영역이 서쪽으로는 오늘의 牙山灣에서 동으로 稷山으로 하여 충청북도의 鎭川·道安·槐山·延豊의 선으로 하여, 계림령·죽령을 넘어가서 경상북도의 내륙쪽으로는 奉化·順興·榮州·禮安·臨河·眞寶·青松·安徳지역을, 동해안으로는 蔚珍·平海·寧海·盈德·靑河에 이르는 선까지 진출하면서 신라의 서울 慶州를 위협하던 과정에서 통일의 꿈은 일단 좌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하였지만 계림령·죽령과 한강의 중심부인 충주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이 컸던 것은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南方經略, 즉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화를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인 충주는 바로 계림령과 죽령의 서쪽이 되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
- 17)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458에서는 ‘雞立嶺·竹嶺 以西(北)의 땅’이라 하였으며, 李丙壽, 1980.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673에서는 ‘雞立嶺(鳥嶺)과 竹嶺 以西 (以北)의 땅’이라고 하고, 더욱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때 鳥嶺·竹嶺 이북의 漢江 全流域은 新羅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을 탈환코자 하여 비장한 결심을 하고 出征’ 하였다고 註를 달아가면서 西를 北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다.
- 18) 拙稿, 1997. 앞 책, 54~56 ;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89. 앞 책, 50~51에서도 서쪽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 19) 拙稿, 「忠州地域의 歷史地理的 背景」, 『國史館論叢』, 107~108에서 鄭麟趾와 洪貴達의 주장과, 『擇里志』·『萬機要覽』 등에서 한결같이 竹嶺·鳥嶺과 忠州는 불가피한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밝히고 있어 이를 예시하였다.

도 고구려가 남쪽 경계를 이루었던 아산만·직산·진천·도안·괴산·연풍의 선과도 일치되며 緯度上 36.8度 線上에 있어 관심이 간다.

이와 같이 볼 때 온달이 목표로 하였던 계림령과 죽령의 서쪽(巴西)의 땅은 사실상 고구려가 남진한 이후 國原이라 명명하고 中原 高句麗碑를 세우는 등 남진통일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려고 하였던 충주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한강의 전 유역을 포함한 전날 고구려가 확보하였던 영토의 회복을 위한 작전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추측된다. 물론 죽령 이남의 경상북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이 지역만 확보한다면 용이하게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아 고구려는 온달의 출정 목적이 실패한 이후에도 寶藏王이 김춘추에게 요구한 죽령의 이북지역과, 연개소문이 실지회복을 위한 의지 등이 모두 온달의 목표한 지역과 다를 바 없음을 볼 때, 계림령과 죽령을 신라에게 빼앗긴 이후 멸망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지역이 갖는 역사지리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본다.

2. 阿且城과 阿且城

아단성은 온달이 이 성 아래서 싸우다가 신라군이 쏜 流矢에 맞아 전사한 곳이며, 나아가서 온달이 출정을 목표한 지역과도 관련이 깊은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 아단성과 관련이 있는 사료를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그 동안 아단성으로 비정하여 온 아단성과 아차성의 기록으로는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문을 들 수 있다. 『삼국사기』지리지 4의 지명을 뺀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百濟의 責稽王 元年(286)조(권24, 백제본기 제2)

고구려가 帶方을 치니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王女寶菓를 취하여 夫人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대방은 우리의 舅甥의 나라이니 그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드디어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고구려의 侵寇를 두려워 하여 阿且城과 蛇城을 수리하여 대비하였다.

② 百濟의 盖鹵王 21년(475) 9월조(권25, 백제본기 제3)

고구려의 장수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漢城을 공격하니, 왕(개로왕)이

도망해 나갔는데, 고구려의 장수 桀婁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조금 있다가 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고 그 죄를 세어 책망하면서 阿且城 밑으로 묶어 보내어 살해하였다.

③ 그리고는 온달전에 나오는 기록으로,

온달이 신라군과 더불어 阿且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流矢에 맞아 노상에서 죽었다.

는 기록이다.

④ 다음으로는 廣開土王陵碑文 중 두 곳에 나타난다. 우선 永樂 6년(396)에 왕이 친히 水軍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58城과 700개의 마을을 공취한 가운데에 빼앗은 58성 중에 阿且城이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말미의 守墓人烟戶조의 新來韓穢의 31성 중에도 보인다.

이상의 사건과 관련한 아단성의 위치에 대하여 서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종래에도 여러 논증이 있었다. 즉 지금의 경기도 파주군 積城의 북방 임진강의 對岸으로 비정하려는 견해와, 강원도 伊川郡의 安峽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과, 지금의 서울 광진구 廣壯洞과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峨嵯山(또는 阿且山)으로 비정하려는 견해 등이 다.

파주군 적성으로 보는 견해는 『삼국사기』 文武王 15년(675)조의,

“安北河에 연하여 關城을 設하고 또 鐵關城을 쌓았다. 靺鞨이 阿達城에 쳐들어와 劫掠하므로, 城主 素那가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唐兵이 契丹·靺鞨兵과 더불어 七重城을 포위하였다”²⁰⁾라고 한 기록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阿達城을 阿且城으로 보고(아마 음이 같다고 생각한 듯), 七重城이 아달성과의 관련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여, 아단성은 칠중하(즉 積城)의 對岸지방에 있었다고 하는 견해이다.²¹⁾ 그러나, 여기에서 아달성과 칠중성과의 관계는 침입군의 성격상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安峽으로 비정하려는 견해도 아달성과 음이 같다고 하여 아달성을 阿珍舍城(安峽)으로 간주하려는 견해이다.²²⁾ 이와 같이 본다면 阿且城은 阿達城

20)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675) 9월조 중, “緣安北河設關城 又築鐵關城 靺鞨入阿達城劫掠 城主素那逆戰士之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21) 1986. 『朝鮮歷史地理』上 (亞細亞文化社), 69·108에서 아달성을 아단성으로 보고 온달전을 인용하면서 칠중성과의 관련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金正浩는 『大東地志』 권1, 永春條에서 乙阿且을 阿達城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음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古號인 子春의 ‘子’가 ‘阿達’ 즉 ‘아들’로 보고 類推하여 典故조에서 素那의 阿達城전투를 기록하고 있어 관심이 간다.

이며 동시에 阿珍舍城이 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광개토왕이 공취한 58성이 漢城 이북에 소재하고 있다는 설에서 취하려고 한 억지스런 풀이로 보여진다.

다음에 廣壯津의 峨嵯城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거의 정설이 되다 싶어 있어 왔다.²³⁾ 이는 『삼국사기』에 阿且城의 ‘ㄹ’자가 ‘ㄹ’자로도 표기되었다고 하여 朝鮮 太祖의 後諱가 ‘ㄹ’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避諱로 ‘ㄹ’자로 고쳐서 阿且城이라 하고, 따라서 그 소재한 산의 이름도 峨嵯山으로 되었다²⁴⁾고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阿且城이 阿且城으로, 그리고 다시 峨嵯城으로 표기가 변해 온 것으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阿且城은 모두 阿且城으로 기록되었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中宗 壬申刊本(일명 正德本)과, 그 후에 간행된 鑄字本에는 분명히 ①과 ②의 例示에만 且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피휘도 아니며, 板刻상의 誤刻²⁵⁾으로 보려는 견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래의 阿且城과 阿且城을 같다고 보아온 견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阿且城과 阿且城은 별개의 지역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에 비교적 校勘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삼국사기』의 여러 刊本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壬申(1512)년 간본(일명 正德本) : 木刻本임. 原本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이다.

①의 責稽王 元年(286)조에는 좀 애매하나 且字(온달전의 阿且城, 지리지 4의 乙 阿且)와 비교하여 보면 且자로 이해된다.

②의 盖鹵王 21년(475)조에는 且자가 분명하다.

나. 鑄字本(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에서 1986년에 影印本을 펴냄) : 顯宗實錄 鑄字本이라고도 한다.

22) 이에 대하여는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122에서 “阿達城(지금의 安峽?)”이라고 하여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69·84 ; 井上秀雄, 1978.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78에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23) 종래의 通史에서는 한결같이(주3)의 諸書 등) 지금의 서울 광장동의 峨嵯山으로 비정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論者는 李丙燾선생으로 『韓國史 -古代篇-』, 458에서 “阿且城은 지금 漢江 廣壯津 北岸의 峨嵯산정이 바로 그곳이다”라 하고,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381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24)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427, 註3)의 본문에서 阿且(且)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註하고 있다. “본시 阿且城이니 且字는 李氏 朝鮮 太祖의 後諱(且)와 抵觸되므로 後世에 且字로 改書하여 阿且城이라 하고, 따라 그 所在山名도 峨嵯山으로 되었다. 지금도 廣壯津 後山에 城址가 남아 있다.”

25) 구리시·구리문화원, 1994.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40에서 誤刻이라고 보았다. 이 책은 경기도 구리시(서울 광장진과의 경계)의 아차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로, 지리 및 역사·문화유적·민속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①(p.169)과 ②(p.177)의 두 곳 모두 ㅄ자가 분명하다.

다. 朝鮮史學會本(1941) : 活字本으로 今西龍의 1차 校訂, 末松保和가 2차 校正을 담당.

①(p.244)과 ②(p.256)의 두 곳 모두 ㅄ자로 되어 있다.

라. 北韓의 科學院本(1958) : 상·하 2권으로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

①(상권, p.587)과 ②(상권, p.617)의 두 곳에서 모두 ㅄ자로 되어 있다.

마. 李丙燾 校勘本 『原文 三國史記』(乙酉文化社, 1977)

①에서는 ㅄ자(p.219)로, ②에서는 본문에는 ㅄ자로 하고 상단의 註에서 ㅄ(p.230)이 옳다고 하였다.

바. 『譯註 三國史記(勘校 原文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이 책은 최근에 출간된 것으로 그간의 여러 刊本을 비교 대조하면서 校勘에 信賴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①의 내용이 있는 본문에 阿且城(p.236)이라 하고, 脚註에서 『三國史節要』와 李丙燾 校勘本인 『原文 三國史記』와 李載浩의 『三國史記』(광신출판사, 1989)에는 ㅄ이라 하였다고 하여 비교하고 있음에서 보아 ㅄ이 아니라 ㅄ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된다.

②의 내용이 있는 본문에 阿且城(p.247)이라 하고, 역시 脚註에서는 李丙燾의 『原文 三國史記』에는 ‘ㅄ(ㅄ)’이라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아 李丙燾선생의 교감본에서만 阿且城으로 보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본래는 ㅄ이나, 避諱하기 위해 ㅄ로 바꾼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譯註 三國史記(勘校 原文篇)』의 각주가 의미하는 뜻도 그렇게 보여진다. 따라서 ①과 ②의 내용은 阿且城과 관련이 없는 본래부터 阿且城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阿且城과 阿且城의 位置問題

아단성과 아차성이 별개의 지명임이 분명하다면 그 위치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

되리라고 본다. 우선 阿且城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래의 여러 견해 중에서 경기도 과주군 積城의 북방 임진강의 對岸으로 비정하려는 의미는 阿且城을 阿且城으로 보고, 이를 다시 阿達城과 같다고 하는 데서 생각하려는 입장임으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에 강원도의 伊川郡 安峽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도 위와 같이 阿且城을 阿且城으로 보고, 阿且城이 阿達城과 통한다 하고 이를 다시 阿珍舍城과 같다고 보아 오늘의 안협으로 비정하는 견해로 이 또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 경기도 구리시의 경계를 이루는 峨嵯山(또는 阿且山)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병도선생은 阿且城을 阿且城으로 보고 오늘의 아차산에 있는 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아단성과는 관련이 없이 아차성으로 보아서 타당한 견해라고 하겠다.

①의 내용 즉 286년의 기록 중 “王(責稽王)은 高句麗의 侵寇를 두려워 하여 阿且城과 蛇城을 수리하여 대비하였다”고 한 내용에서 보아, 아차성은 사성과의 관련으로 볼 수 있음으로 이해가 된다. 사성을 風納洞土城으로 비정하고 있으므로²⁶⁾ 백제에서는 한강 남쪽에 있는 서울(漢城)을 고구려의 침구로부터 방어하려면 한성의 외곽이며 한강변에 있는 사성(풍납동토성)과 사성과 마주하는 江北의 阿且城을 중시하였음은 당연하다고 하겠기 때문이다. ②의 내용인 475년의 기사 중, 고구려군이 백제의 서울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왕(개로왕)을 잡아 ‘阿且城 밑으로 묶어 보내어 살해하였다’고 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이 때 고구려군은 지금의 서울까지 진격하여 아차성을 탈환하고 本營으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시 渡江하여 백제의 서울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잡아 고구려의 본영인 아차성으로 보내어 살해한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릉비의 阿且城과 온달전의 阿且城은 어떤 관계일가가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같은 지역이며 오늘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일찍이 安鼎福도 주장한 바이며, 근년에 李道學선생의 연구도 있으나, 이들은 모두 阿且城=阿且城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²⁷⁾

26)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71.

車勇杰,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1)」, 『郷土서울』39.

27) 安鼎福, 『東史綱目』 第2下, 乙卯(475)조에서, “阿且城(未詳 或云 今 永春)”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사는 阿且城이라야 옳을 것이나, 阿且城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阿且城을 영춘으로 보려고 하였으며, 또한 乙阿且으로만 전해 온 영춘을 阿且城으로 이해하려고 한 최초의 기록으로 주목된다.

李道學, 1988. 「永樂6年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00에서 영춘의 온달성을 阿且城으로 보고, ‘永樂 6년에 충주를 비롯한 남한강 상류 지역이 고구려에 점령되었다’고 하였다.

그 동안 永樂 6년(396)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58성을 漢城의 북방에서 찾으려고 한데서 온 입장은 中原 高句麗碑의 발견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58성 중의 하나인 古牟婁城이 중원 고구려비에도 보이기 때문이다. 고모루성의 위치를 강원도 방면에서 충주지역으로 연결되는 전진기지로 한강 상류로 보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이 본다면 광개토왕 6년에 고구려의 일부 군대는 고모루성을 거쳐서 아단성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온달전에서의 아단성은 온달의 출정 목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온달은 “雞立嶺과 竹嶺”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서울 광장동의 阿且城 밑에서 전사하였다면 너무나 거리에 차이가 난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 지금의 서울 지역은 신라가 생명처럼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진흥왕 14년(553)에 백제의 한강 하유역을 공취한 신라는 新州(백제의 서울인 漢城, 즉 江南)를 설치하고 金武力을 軍主로 삼았다. 진흥왕은 2년 뒤에 北漢山을 巡幸하고 巡狩碑를 세우고, 그 2년 후인 18년(557)에 신주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두었다는 데에 관심이 간다. 이는 백제보다 고구려를 더욱 의식하고 주력을 강북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는 또한 漢山亭(新州亭 또는 南川亭)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견고하게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였던 지역인 광장동의 阿且城까지 온달이 진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아단성이 곧 아차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관심이 가는 것은 영춘이 고구려가 장악하고 乙阿므이라 이름하였다는 사실이다. 乙이 ‘웃(上)’으로 ‘上’의 뜻이 있다고 보고, 阿가 ‘小’의 뜻이라고 한다면 乙阿므은 阿므에 대한 높이는 美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본래는 즉, 백제시대에는 阿且城으로 호칭하다가 광개토왕의 점령 이후 고구려에서는 이 지역이 죽령의 남쪽으로 통하는 길목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한 새로이 편입된 지역민을 의식하여 높여서 乙阿므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²⁹⁾

28) 檀國大學校史學會, 1979. 「中原高句麗碑學術座談會」, 『史學志』13, 133에서 邊太燮교수의 말.

29) 梁柱東, 1940. 『朝鮮古歌研究』, 博文書館, 426에서 古借字의 語首에서는 웃(上)에 쓰여져 왔다고 하여 乙阿므은 ‘웃아차골’이 된다고 한데서 이해된다. 이 책에서는 광개토왕비의 阿므을 阿且城의 잘못이라고 하였다(106). 또한 地名에서 ‘阿’는 ‘앗’으로 借用된다고 하고 보아 ‘小’의 뜻이라 한데서 짐작된다. 고구려는 南征 이후 전부터 있어 왔던 지명을 사실상 무시하고 새로이 命名하여 지역민의 의식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이라 보여지니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본래 백제와 신라지역이 분명한데도 고구려가 새로이 확보한 지명에 “本 高句麗”云云한 데서도 생각이 미친다.

李道學은 앞의 논문(98)에서 ‘阿’는 한강을 가리키는 阿利水의 阿利의 縮音이며, ‘므’은 城谷의 뜻으로 보고, 乙阿므은 ‘한강 상류의 城谷’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강 하류의 阿且(阿且城)이 생긴 지명이라 하였으며,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상류의 阿且城을 乙阿且城으로 일컬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단성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니 온달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아마도 옛 이름에 대한 향수라고나 할까? 그러한 예는 한둘 있어 짐작된다.³⁰⁾ 또한景德王 때 이름을 子春縣이라 하였으나 이도 阿旦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니, ‘아단’이 변음하여 ‘아달(子)’로 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뜻에서 金正浩는 阿達城을 阿旦城과 같다고 보고, 文武王 15년(675)에 靺鞨이 阿達城에 쳐들어와 劫掠하자 성주 素那가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사실을 영춘지역으로 보고 있다.³¹⁾ 말갈족의 진출로 이해가 간다.

그러면 『삼국사기』 지리지4에 보이는 乙阿旦城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誤刻이 아니라 誤記로 보고자 한다. 지리지의 본문(지리지2, 奈城郡조)에서는 乙阿旦縣이라 하였으니 이는 지명의 연혁을 기록할 때는 지명에 대한 의식을 하면서 作邑(移記)을 하였을 것이며, 단순한 지명만을 옮기는 경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측된다.³²⁾

더욱 주목되는 것은 『輿地圖書』 등 몇몇 지리지에 보이는 ‘古老相傳’이라 하여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으니, 지금의 온달산성에 대하여 고구려의 온달과의 관련과 온달이 충성하였다고 한 사실이다.³³⁾ 온달과 같은 명장이 계립령과 죽령을 목표하고 출정하였다면 최소한 계립령과 죽령 근처까지는 진출하였어야 하리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지금의 서울 지역인 峨嵯城이라면 너무나 거리상으로 보아 이해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차성 주변에는 온달에 관한 전설이 전혀 없는데 비해,

30) 國原을 신라는 景德王 때(왕 16년, 757) 中原으로 개칭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이후에도 때때로 國原으로 표기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憲德王 14년(822)조와 孝恭王 3, 4년(899, 900)조 및 弓裔조 등에서 볼 수 있다.

31) 『大東地志』 권6, 永春 沿革條에서 “本新羅乙阿旦(一云阿達城) 景德王十六年改子春訪(呼子爲阿達)…”이라 하였음에서 이해된다. 여기에서 本新羅는 백제로 봄이 옳을 것이다. 또한 典故조에서 阿達城에서 素那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

32) 『高麗史』 지리지와 『東國輿地勝覽』에도 乙阿旦縣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삼국사기』를 읽으면서 誤記된 부분이 있음을 느낀 바 있다. 여러 차례 옮기면서(移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例示하면, 眞宗王 9년(548)조에는 신라 장군 ‘朱玲’이라 하였으나(권4), 같은 사건 기록인 百濟의 聖王 26년조에서는 ‘朱珍’(권26)이라 한데서 짐작된다. 이 경우에는 어느 편이 옳은 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분명한 한 쪽의 오기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33) 『輿地圖書』 永春 古跡조, “古城(石築周一千五百二十三尺內有一井今半頽圯 古老相傳 愚溫達爲高句麗女婿 請守乙阿朝築之云 在官門南距七里)”
『增補文獻備考』 권26, 輿地考14, 永春古跡조, “在南七里 石築(周一千五百二十三尺高十一尺)內有井一世傳 高句麗將愚溫達 請守乙阿朝築之”
『忠清道邑誌』 永春縣 城池조, “古城(石築周一千五百二十三尺 內有一井今廢 舊傳 愚溫達爲高句麗女婿 請守乙阿朝築之云 官門南距五里池則無” 등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이들 책에서는 乙阿旦을 乙阿朝라 하였으니 이는 李成桂의 後諱가 ㅄ임으로 避諱하여 同意字인 朝로 표기한 것이다.

계립령과 단양의 온달산성 주변에는 의외로 온달과 관련한 전설이 많다는 데에서도 이해가 간다.³⁴⁾

이상에서 愚見이나마 阿且城과 阿且城(峨嵯城)은 같은 이름의 다른 표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지명임을 살펴보았다. 아차성의 위치는 종래의 주장인 광장진의 아차산으로 보아야 하며, 아단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I. 結 言

고구려는 백제에 의한 故國原王의 戰死에 대한 보복을 위해 永樂 6년(396)에 한강변으로 진출하여 한 때 58城과 700개의 마을을 공취하였다. 이 때 고구려의 세력은 지금의 서울지역까지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한강의 상류역인 충주지역과 단양 영춘지역인 阿且城까지 장악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당시의 정세상 일시 물러섰다가, 남진통일의 꿈을 안고 5세기 후반인 長壽王 63년(475)부터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펴서 서쪽으로는 아산만으로부터 동으로 계립령과 죽령을 넘어서 경상북도의 내륙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盈德·靑河까지 나아가 신라의 서울 경주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좌절된 의미를 만회하고자(통일의 꿈) 國原(忠州)에다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는 등 전진기지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구려가 새로이 장악한 지역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일제히 지명을 새롭게 명명하였으니 충주를 국원으로, 영춘을 乙阿且 등으로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本 高句麗” 云云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와 백제는 동맹관계를 맺고 이에 대응하였다. 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신라와 백제의 두 英主인 진흥왕과 성왕은 힘을 합하여 551년에 전 한강유역의 이복으로 고구려 세력을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후 신라는 오랜 숙원인 한강유역 진출의

34) 계립령 주변에는 온달의 戰死之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金正浩의 靑丘圖), 온달장군의 전적지로서 계립재의 말무덤, 환훤터의 전적지(張基德, 『中原郷土記』 I, 226)가 있으며, 또한 계립령이 있는 大院寺址(통칭 彌勒里절터라 함) 안에는 온달장군이 갖고 놀았다는 공기돌이라 하여 큰 바위 위에 직경 1미터는 실히 되는 둥근 돌이 올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단양 영춘 지역에는 온달산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설이 있으니, 『한국지명총람 -충북편-』(한글학회, 1970)의 단양 영춘면조를 비롯하여, 林東喆, 1984. 「忠北 北部地域의 說話考 1 -溫達傳說의 分布와 傳承을 中心으로-」 『忠北大學校論文集』27의 논문까지 있으며, 忠淸北道, 1982. 『傳說誌』의 丹陽郡 永春面조와 尹洙慶, 「溫達山城과 周邊地名에 대하여」 『溫達山城地表面調査報告書』, 68~79에서 ‘온달산성’을 주축으로 한 ‘流行語’가 12, 온달과 관련된 ‘戰爭用語’가 47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단편적인 기록은 많이 있다.

꿈을 실현키 위해 553년에 백제가 장악하던 한강 하류유역을 석권하였다. 신라에게 배신을 당한 성왕은 보복을 위해 管山城을 공격하다가 전사한 사실은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강의 전 유역을 장악한 신라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백제의 서울이었던 漢城에 新州를 설치하고 유명한 金武力장군을 軍主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555년에 진흥왕은 더욱 한강 하류역에 관심을 갖고 北漢山을 순행하고 拓定封疆하였으니, 이는 北漢山巡狩碑를 세우는 등 확실한 영역의 확정을 의미하는 사실로 보인다. 또 2년 뒤인 557년에는 국원(충주)을 小京으로 승격시키고, 신주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두었으니, 이 사실은 한강 남쪽의 주력을 고구려를 의식하고 江北으로 옮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漢山亭(軍團)을 두는 등 요새화된 지역에 아무리 날랜 濫達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 지역을 뚫고 남하하여 다시 목표한 계림령과 죽령방면으로 진출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사실상 무모한 일이라고 보인다.

신라는 이듬해인 558년에는 국원에다 서울(경주)의 貴戚子弟와 六部豪民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 또한 신라가 계림령·죽령과 더불어 한강의 중·상류역을 확고히 하고자 한 뜻이라고 보여진다. 이 지역은 바로 고구려가 남진통일을 위한 전진기지화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삼국이 치열하게 정립하고 있었던 당시에 있어서 이 지역은 실제적인 중심부로 이 지역을 확보한 세력은 四面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이기에 통일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갖춘 지역이라 하겠다.

한강유역에서 밀려 올라간 고구려는 통일의 꿈을 만회하려고 계획하여 일차적으로 그들이 전진기지화를 시도하였던 국원성과 계림령·죽령지역을 되찾기 위해 嬰陽王 초에 저 유명한 온달장군이 “계림령과 죽령의 서쪽 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비장한 결의를 하면서 출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阿且城 아래에서 불행하게도 크게 싸우지도 못하고 流矢에 맞아 전사를 하였다.

그 동안 阿且城과 阿且城을 같다고 보는 등 혼동하여 온달이 전사한 곳을 서울지역인 광장진에 있는 峨嵯山으로 비정하여 왔다. 이는 사료를 소홀히 다룬데 원인한다고 보인다. 아단성과 아차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阿且城은 광장진의 峨嵯城으로 볼 것이나, 阿且城은 지금의 단양군 영춘지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지역으로 진출한 고구려군의 역할은 대단하였다고 보여진다. 실제적인 전투 상황을 알리는 기록은 없으나 온달이 출정을 목표로한 지역에 전하여 오는 많은 관련된 전설은 결코 우연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계림령 주변인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일대와 단양군 영춘면 일대에는 온달과의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전설이 있음에 관심이 간다. 또한 온달산성이 온달이 축성하였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온달과의 관련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조사와 연구로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일이라고 보여진다.

그 동안 阿朶城의 문제가 阿且城(峨嵯城)과 혼란을 일으킨 것은 지나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서 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사료의 빈약함과 기록의 모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사료의 기록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보려는 입장도 중요하다. 說話的인 성격이 짙다고 하여 그것을 허구로 돌리고 추리를 하려는 입장도 올바른 역사를 보려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